

2015.5.31. 주일오후예배 메시지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

사도행전 17:1-9

강요한 목사님

전도캠프에 대한 오해를 바꿔야 한다. 전도캠프는 무엇인가?

(1) 창1:3, 빛을 비추는 것이다.

(2) 사60:1-2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라는 것이다. 이 빛을 비출 때 모든 열방이 회복되고, 아들 딸들이 안겨오고, 부와 재물이 돌아오며, 이방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성문이 항상 닫히지 않을 것이고,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캠프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

(3) 요1:11에, 말씀이신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캠프다.

(4) 마5:13-16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다. 이 빛을 받은 자,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이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5)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설명했다. 벰전2:9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이 비취질 때 현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캠프다.

### 1. 후속캠프

본캠프를 마치고 후속캠프를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하겠는가? 초대교회의 캠프다.

(1) 초대교회의 캠프를 보라. 캠프의 중심이다. 인생 전체를 드렸다. 행1장, 4장, 7장, 9장, 14장, 다 특징이 있다. 생명을 담보로 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 생명을 건 것이다. 공회 앞에 선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누린 것이다.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도 생을 걸고 캠프했다. 자기 생활을 내어놓고 캠프했다. 루디아, 아손이 다 자기 생활을 내놓았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의 생업 자체를 다 내어놓았다. 그 캠프를 한 것이다. 자기의 재산도 가장 가치있게 투자를 했다. 그게 빌레몬이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자기 생활 뿐 아니라 모든 재산을 가장 가치있는 복음운동에 투자했다. 캠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여야 한다. 이런 마음, 중심으로 가야 한다. 캠프는 빛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내 인생과 마음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 중요한 보화 하나만 있어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법이지 않나.

(2) 마28:18-20, 예수님의 전도전략이다. “너희는.” 요원화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원이 필요하다. “가서.” 현장화다. 현장으로 가야 한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화시켜야 한다.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까지 응답을 받아야 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양육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다.

(3)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전략에 맞춰서 후속캠프를 해야 되겠는데, 그 key가 무엇인가? 방법은 재생산이다. 또다시 현장에서 지속하고 말씀운동할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이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제

자들을 만들었다. 딤후2:1-7에서 바울은 부탁한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운동이 일어나야만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재생산되는 제자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이런 사람을 1년에 한 명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내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라. 24년 동안 이렇게 하면 1600만 명이 넘게 나온다. 1천만 제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계 복음화 될 것 아닌가. 이게 후속캠프다.

## 2. 인생 전체를 드리는 캠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은 오늘 제목이다.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2) 공회, 핍박 앞에 섰던 사람들이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으므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3) 그래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울과 디모데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한 것이다.

(4) 현장의 시간표를 발견했다. 현장에 갔는데 루디아, 아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5) 중요한 것은 롬16장과 같은 제자의 시간표다. 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표를 허락하신다. 성령인도, 성령충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겠는가. 복음 전하는데 왜 핍박을 안 받겠는가. 당연한 것이다. 이 복음 전하는데 왜 인생을 아까워하겠는가. 그러니까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라.

## 3. 전도 열매

반드시 일어나는 전도 열매다.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신다.

(1) 행2:41,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다.

(2) 행4:4, 남자만 5천 명이 일어났다.

(3) 행10:45,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이 돌아오게 된다.

(4) 행14:21-22,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제자를 찾는데,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만나는 것이다.

(5) 행16:16-18, 점하는 귀신들린 여종, 점술인, 무속인이 돌아오게 된다.

(6) 행17:4, 오늘 본문이다. 허다한 헬라인의 큰 무리, 수많은 귀부인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7) 롬1:9,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가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롬16장의 일꾼,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단 누명 때문에 전도에 지장이 있는가? 맞지만 그런 마음은 빨리 버려야 한다. 이단 누명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예비하신 알곡을 붙여주신다. 아무나 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숨겨 두셨다.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도록 잘 숨겨 두셨다.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연결시키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는가? 헬라, 마케도나의 우상 분위기가 방해가 되는가? 로마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핍박, 교권의 방해, 아무 상관없이 전도 열매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 결론

우리는 꼭 이렇게 캠프를 해야 한다.

(1) 행13:1-3이다. 바울과 그 팀을 보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다. 완벽한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게 필요하다. 성령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지게 되어 있다.

(2) 구경하러 가면 구경만 하다가 돌아오게 된다. 중요한 제자와 현장에 내 인생 전체를 거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

(3)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된다.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게 되며 숨겨진 제자를 그 안에서 찾는 것이 전도캠프다. 성경에 전도캠프의 모델이 되는 구절이 몇 개 있다. 행13:1-12, 행16:11-40, 행17:1-9, 행18:1-4, 행19:8-20. 공통된 특징이 있다. 뭔가? 인생 전체를 건 것이다.

전도캠프는 행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전도캠프다. 전도캠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겠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생을, 삶을, 가장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드리게 되기를 축원한다.